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필리핀의 수빅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생각보다 작은 편이었다. 시설은 내가 생각했던 필리핀과는 달랐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은 영어학원 느낌 이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친해져 돈독한 분위기였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내용은 회화를 기본으로 하여 Essential words, Impact issue, Can you believe it?, SLE 등의 교재로 말하기, 듣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1:1수업이 증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룹수업은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 끼리 그룹을 이루어 TOEIC speaking 수업과 토론수업을 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Activity는 매주 토요일 이루어졌고, 첫 번째 Activity는 요트투어였다. 요트에서 다이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는 까마얀 비치였다. 입장료로 500페소를 냈지만 수영복을 챙겨가지 않아 아쉬웠다. 세 번째는 마닐라투어였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답게 매우 복잡하고 정신없는 곳이었지만 즐거웠다. 마지막은 안바야 코브의 인피니티 풀 이었다. 입장료로 1000페소를 내고 들어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한국의 여름 날씨와 비슷했고, 흐린 날이 자주 있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어느 곳을 가든 항상 소지품검사를 하고 학원 밑에도 항상 가드가 있어 안전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벌레가 조금 많이 있었지만 지내다 보니 적응하였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에서 나오는 급식이 정말 맛있었다. 그래서 급식을 자주 이용했고, 외부식당은 선생님들에게 추천받은 곳을 가보았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FB를 주로 이용했고, 아홉시에 FB가 끊기면 택시를 이용했다. FB나 택시들은 관광객에게 덤태기 씌우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가격을 잘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330,000(300달러)	식비, 기념품, 주말활동, 출국세 (15000페소)
합계	96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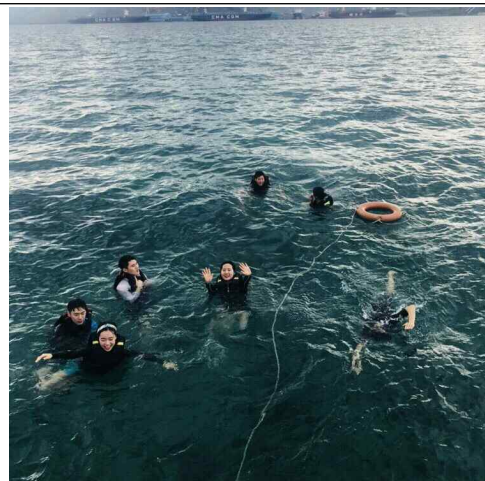
노트북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지만 수강신청이나 시험결과 확인할 때 필요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매우 뜨겁고 덥기 때문에 휴대용 선풍기가 아주 유용했다. 단어장도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단어책을 교재로 쓰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또, 입국할 때는 출출하니 패소를 조금 남겨놓는 것도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4주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하루하루 룸메이트와 친해지고, 학교 사람들과도 친해지면서 필리핀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1:1수업이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하여 부담스러웠지만, 어느새 선생님들과도 친해지면서 수업 대신 수다를 떠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 선생님들과 이별해야 할 때에는 선생님들과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쉬운 감정이 들었다. 선생님들과는 앞으로도 연락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는 나에게 짧지만 큰 도움이 되었고, 값진 경험이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영어 공부를 더욱 자신있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투어 때 다이빙했던 모습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마닐라 투어 풍경



까마얀 비치



안바야 코브 인피니티 풀



졸업식날 수료증을 받는 모습